

고환율에 안 오른 게 없다...서민들 삶 갈수록 '팍팍'

맛김 22%·김치 17%↑ ...지난달 가공식품 1년만에 최대폭 상승 광주 참기름 1년전보다 8.0%·간장, 식용유 등도 7~8%대 폭등 12개 물가지수 모두 1년전보다 크게 올라...금로자 임금은 제자리

지난달 고물가·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서비스까지 모든 영역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 물가는 고물가에 더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오른 환율에 원자재 값까지 뛰면서 1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물가는 끝없이 오르는 가운데,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은 1년전보다 4% 가량 오르는데 그치면서 서민들이 먹고 살기는 더

퍽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1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품목 성질별로 전기·가스·수도(3.1%)와 서비스(2.3%) 분야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웃돌았고, 공업제품(2.2%), 농축수산물(1.9%)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과일류, 채소류를 중심으로 높은 물가를 기록했던 농산물은 1년전보다 0.6% 오르는데

그쳤지만, 축산물(3.7%), 수산물(2.6%)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공업제품에서는 가공식품 물가지수가 122.03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올랐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2.0% 이하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물가에 더해 고환율까지 겹치며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가공식품 품목별로는 오징어채(22.9%)가 1년 새 가장 많이 뛰었다. 이어 맛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 밖에도 각종 가공식품에 필수적인 양념류 등의 물가 상승폭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물가협회가 따르면 지난

달 광주지역 참기름 가격은 320ml 기준 1만 145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 올랐다. 이 밖에 간장과 식용유 등도 7~8%대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밀가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곡물수입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물가지수가 137.43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산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각종 프랜차이즈에서 밀가루를 사용하는 비스킷(7.0%), 케이크(3.3%) 등 가공식품 물가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지출목적별 분류로 보면 12개 물가지수 모두 1년 전보다 상승했다. 물가가 오르지 않은 항목이 없는 셈이다.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3.9%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 교통(3.3%), 음식 및 숙박(3.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4%) 등 순이었다. 이외에도 교육(2.1%), 오락 및 문화(2.1%), 보건(1.4%) 등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서 물가가 끝없이 오르는 가운데,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6~8월 3개월간 평균을 기준으로 4.0% 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지난해 평균 임금이 234만원으로 전년 동기(230만 3000원) 대비 3만 7000원(1.6%) 오르는데 그쳤다. 이어 70대(2.2%), 80대(2.6%), 50대(3.7%), 30대(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폭이 가장 낮았던 20대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상승폭마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예금 금리 '뚝' 금값 '쭉'...은행 대신 금에 돈 넣는 시민들

저축은행 금리도 3% 이하로 하락 금 ETF 1년새 순자산 3.7배 불어

직장인 김명진(34)씨는 최근 시중은행에 가입했던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이 만기일이 도래하자 곧바로 증권사의 금 ETF에 가입했다. 김씨는 은행의 권유로 정기예금 재가입을 고민했지만 금리가 3% 안팎의 낮은 수준이라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봤을 때 정기예금은 수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며 "금값이 이미 많이 올랐지만, 금 투자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적은 리스크로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 금과 가상화폐 등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열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금의 경우, 금 관련 ETF 투자금이 1년새 4배가 늘어나는 가하면 골드바 구매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예·대마진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은행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감지된다. 1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 연 2.70~3.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년 기준 3.15%로 한 달 만에 0.15%포인트 떨어졌다.

이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 관련 상품은 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금 ETF는 'ACE KRX 금현물' 등 모두 6종으로 해당 상품들의 순자산 총계는 11일 종가 기준 1조 2605억원에 달했다. 1년 전 이 ETF들의 순자산은 3452억원이었는데, 당차가 한해 사이 3.7배로 커졌다. 1달 전(9319억원)과 비교해도 35.3%가 증가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골드바 판매액은 8억 7773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2억8611만원)보다 3.0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모하비 주행시험장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념사인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 미국 모하비 주행시험장 20주년 정의선 "다가올 20년도 신기술 혁신 핵심"

현대·기아차 5000여대 테스트

지난 2005년부터 5000대가 넘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테스트해온 '모하비 주행시험장'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시에 위치한 모하비 주행시험장에서 설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품질 경영을 상징하는 모하비 주행시험장 설립 기념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이 직접 참석해 완벽한 품질과 성능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연구원들을 축하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지난 20년 동안 모하비주행시험장과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AI, 로봇 공학, SDV, 전동화, 수소 기술과 같은 선구적인 기술에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혁신을 위해 모하비주행시험장과 같은 연구시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선 회장은 현지 연구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20년의 여정에서도 도전을 기회로, 좌절을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하비 주행시험장은 지난 2005년, 1200억원을 투자해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한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1770만㎡(약 535만 평) 규모로 조성됐다. 주행시험장은 10.3km의 타원형 고속주회로와 6개 기술기로 구성된 등판성능 시험로 5km의 와인딩트랙, 18종류 노면의 승차감 시험로, 오프로드 시험로, 미국 고속도로 재현 시험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모하비 주행시험장에서 승차감과 핸들링 평가, 소음, 진동 및 내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5000여 대의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이 약 3200만km 이상의 주행 시험을 거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밸런타인데이 다양한 와인 즐기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다양한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16일까지 지하 1층 와인 본매장에서 스파클링 와인 등 각종 와인들을 추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브라운 브라더스 프리미엄 퀴베'를 롯데 단독으로 선보이고, 이 밖에도 '간치아 모스카토 로제' 등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을 품목별로 최대 60% 할인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

1000억원 이하 현행 3년간 동결

내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이들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평균 8.7% 줄어들게 됐다.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4일부터 올해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이 시작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

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기업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합뉴스

전남신보, 'ESG 경영 마스터플랜 2030' 수립

전남신보보존재단(이하 전남신보)가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ESG 경영 마스터플랜 2030'을 수립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실행 방

안을 담고 있다. 전남신보의 ESG 미션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으로 설정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정전남 구현, 상생·동행 강화, 투명경영 확립의 3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6개 전략과제와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정전남 구현 부문에서는 친환경 경영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 이를 위해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신보는 ESG 경영의 효과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ESG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을 전략적으로 전담하는 'ESG 혁신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대 제조업 을 투자 119조원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투자 전략회의

올해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10대 제조업에 지난해보다 7% 증가한 119조원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5차 산업투자전략 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투자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은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조짐,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작년에 이어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메모리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고, 자동차 업계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이차전지와 철

강 등의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과감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높아지는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안 장관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입법·자금·통상 측면에서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전력망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올해 계획된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눈여겨보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서 AI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83.17 (+34.78)
↑ 코스닥	749.28 (+4.10)
↓ 금리(국고채 3년)	2.631 (-0.020)
↓ 환율(USD)	1450.40 (-3.00) (오후 5시 55분 기준)